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과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과제 및 중장기 로드맵 논의

- 학계·현장·경제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지난해 12월 새롭게 구성된 협동조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책방향 논의
- 민간위원들은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성장단계별 판로·인력·교육 등 맞춤형 지원, 자금조달 지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논의된 사항은 종합 검토후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1분기 발표 계획, 금년중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앞으로도 각계 각층의 의견 지속 수렴

기획예산처는 1월 23일(금) 14시,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룸에서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및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6.1.23(금) 14시 /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룸
- (참석자) 정부기획예산처 통합성장정책관, 상생협력전략과장 등
전문가장대철 위원(KAIST), 조현경 위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순문 위원(법무법인 더함), 김세운 위원(서울연구원 약자동행센터), 이희숙 위원(재단법인 동천), 강민수 위원(한국사회연대경제), 김은선 위원(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조혜경 위원(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

기획예산처는 다양한 시각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 연합회 중심의 현장 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학계·현장·경제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된 협동조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 제8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 '25.12.1 ~ '27.11.30

이번 간담회는 협동조합의 현장경험과 제도적·전문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여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과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을 보다 균형있게 설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기획예산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 과제(안)을 제시하였고, 민간위원들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강민수 위원(한국사회연대경제), 김세운 위원(서울연구원 약자동행센터), 김은선 위원(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은 모두 협동조합의 경영부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단계별 판로·인력·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업종별 특화 교육과정 마련,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확보 등을 논의하였다.

장대철 위원(KAIST), 조혜경 위원(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은 협동조합이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조달 방안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우선출자 기준 완화*, 상호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보증 지원 등을 언급하였다.

* 우선출자(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의2) :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출자, 우선출자는 납입출자금 총액(또는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자기총자본) 총액의 30% 초과할 수 없음

정순문 위원(법무법인 다함), 이희숙 위원(재단법인 동천)은 협동조합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면 중심의 총회 운영방식을 서면·전자방식까지 허용하고, 협동조합의 유형·특성을 감안한 등록면허세 감면* 등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등록면허세 최저한세(112,500원) 제도로 변동되는 출자금액보다 더 큰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존재

조현경 위원(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빈집정비, 마을재생, 돌봄·에너지·주거 서비스 공급 등 협동조합-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우수 협동조합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중장기 시계에서 중앙부처, 지자체, 현장 간 정책 거버넌스를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하며, 연합회를 협동조합의 보조적 주체가 아닌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핵심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리스크 속에서 시장과 공공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라고 강조하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기 추진가능한 과제는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하여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 시계(중기: 2030년, 장기: 2030년 + @)에서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담당 부서	미래전략실 상생협력전략과	책임자	과 장	전보람 (044-214-1750)
		담당자	사무관	배준혜 (jhae10@korea.kr)
			사무관	양성철 (yg1102@korea.kr)
			사무관	이재모 (zamo@korea.kr)

